

신안 '천사대교' 관광명소 부각 '대박' 조짐

서해안 섬 접근성 획기적 개선
연간 관광객 500만명 기대감
설 통행차량 8만2000대 육박



설 연휴를 맞아 임시개통한 천사대교가 시원하게 뚫렸다. 암태와 안좌, 팔금, 자은도 등 신안 중부권 4개 섬을 10분만에 연결하는 천사대교는 관광명소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천사대교'가 설 연휴 기간 임시 개통에서 대박을 예고하는 등 관광 명소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오는 3월 말 정식 개통하면 서해안 섬들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연간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신안군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임시개통(1~7일)된 지난 1일부터 천사대교를 이용한 통행량은 6일까지 왕복 8만2000여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설 전날인 4일에는 1만5200여대로 절정을 이뤘고, 5일과 6일 각각 1만4500여대를 기록했다. 이 무렵 신안 관문인 압해대교와 천사대교까지 통행은 4시간 가량 소요되는 등 정체를 빚기도 했다.

천사대교는 암태와 안좌, 팔금, 자은도 등 신안 중부권 4개 섬을 10분만에 연결했다. 여기에다 도초·비금, 하의·장산·상태 등의 섬을 찾은 귀성객에게도 편안한 귀성길이 됐다.

예전 같으면 목포에서 여객선을 통해 섬 왕래를 해야 했고, 이들 섬 귀성객은 비금·도초는 암태 남강항에서, 하의·장산 등은 안좌 북호항에서 뱃길이 열리면서 1시간 이상 단축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번 임시개통에는 귀성객뿐만 아니라 인근 광주와 순천 등 나들이객들까지 몰려 오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현상도 빚었다.

또 농수산물, 건설자재 등을 수송하는 대형차들이 천사대교(1등급-43.2t) 통과

후 교량등급이 3등급(24.3t)밖에 안되는 신안1교(안좌-팔금), 은암대교(암태-자은) 두 교량을 통과하지 못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위 도로 승격 등

? 천사대교
2010년부터 5814억원을 들여 길이 10.8km, 너비 11.5m 왕복 2차로 규모로 건설됐다. 다리 길이만 7.22km로 국내에서는 영종대교, 인천대교, 서해대교에 이어 4번째로 길다. 또 하나의 다리에 사장교(기둥에 줄을 연결한 다리)와 현수교(줄에 줄을 연결한 다리)를 함께 넣어 독특한 미관을 연출했다. 더욱이 주탑 높이가 164m, 주탑 거리 650m인 3주탑 형식 이어서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다. 다른 대교보다 1004개 섬으로 이뤄진 다도해의 아름다운 절경도 장점이다.

조속한 교량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지방도 관리청인 전남도와 국도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로 이러한 문제를 점차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천사대교는 교차로와 경관조명 시설 등을 완료해 다음달 말 정식개통을 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천사대교는 신안군 전역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 성격이 강해 주민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켰다"면서 "관광육성과 주민소득 향상을 포함한 발전전략을 세워 주민이 잘 사는 군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함평군, 제 5기 도시재생대학 26명 수료

9주간 주거·상가 재생 교육

함평군은 최근 함평읍 도시재생센터 회의실에서 제5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진>

수료식에는 수강생과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총 26명이 수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9주간 진행된 제5기 도시재생대학은 함평읍 소재지의 특성을 살린 주거재생, 상가재생, 거점재생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주민공동체 운영

관리 및 실천방안, 도시재생사업 운영과정 등을 교육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도출된 팀별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현재 군에서 용역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함평군 관계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전문가와 행정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대학을 지속 운영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읍 중앙로 일대는 90년대 후반까지 함평의 역사·문화·상업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신시가지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빈 상가와 공·폐가들이 다수 발생돼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영광군, '찾아가는 인구교실' 운영...인구 늘리기 총력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력



3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구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과 단체는 영광군 인구 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061-350-5257)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인구문제는 단기간

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인구정책 발굴과 함께 각계각층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 지역업체 5237곳 대상
중사자수·매출액 등 전수 조사

영광군이 13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전국사업체 조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영광군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18년 12월 31일과 조사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다.

영광군에서는 5237개 사업체가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성별, 연령, 소재지, 종사자수, 창설일, 연간 매출액 등 총 14개 공통항목을 조사한다.

조사자가 사업체 현황을 방문해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우편조사도 함께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도 작은도서관 독서도우미 발대식



무안군, 남악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독서도우미' 발대

무안군이 최근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작은도서관 독서도우미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

작은도서관 독서도우미와 도서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대식에서는 2019년 독서도우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군은 지역 13개소의 작은도서관에 2월부터 12월까지 독서도우미를 파견해 주 5일, 매일 2시간씩 어린이 독서지도, 도서대출, 장서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

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어린이 독서지도를 체계적이고 흥미롭게 할 수 있도록 '책 놀이지도사' 교육과정을 개설해 독서도우미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주민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문화사랑방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